

기윤실 바른가치세미나  
미투와 기독교

2018년 4월 23일(월) 오후 7시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예배실

# 순서 및 목차

1. 인사 / 사회 박선영 (기윤실 바른가치운동본부 본부장, 한국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2. #MeToo, 기독교의 시선으로 보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살펴 본 미투 운동

/ 최순양 교수 (이화여대)

3쪽

3. #WithYou, 기독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 김애희 사무국장 (교회개혁실천연대)

11쪽

4. 종합토론 / 다함께

---

발행일 | 2018년 4월 23일

발행인 | 백종국

편집인 | 정병오

편집 | 박제민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cemk.org](http://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mailto:cemk@hanmail.net)



# 기독교의 입장에서 살펴 본 미투 운동

기독교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없다면, 그 이유들은 무엇일까?

최순양 (이화여대)

## 1. 제도화된 기독교가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me too 운동을 보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교회에서는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고, 만약 부정적인 대답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바라 보는 자각의식의 부재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성서, 신앙 고백적 교리들에서 여성을 2차적 존재로 여겨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 많지 않다.

교리나 신조, 기독교의 철학과 신학을 형성하고 있는 사상들에 여성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했을 때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제기( 여성은 교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를 할 경우, 반 기독교인이 되거나, 신성 모독적 입장에서 있다고 여겨질 때가 많은데, 그것은 교회의 질서 즉 가부장적 질서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질서라고 믿기 때문이다.

신학교에서 여성신학이나 여성과 종교 등 여성의 시각에서 기독교를 되짚어보는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은 “왜 신학인데, 여성만을 위한 것을 추구하는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진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다. 즉, 기독교는 모두를 포함하는 포용적 종교인데, 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기독교적 정의를 세우는 것이냐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남성 중심적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립된 ‘세속화’가 진행된 종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독교의 남성중심성이나 권력 편중적 관점을 알리면서 동시에, 본래적 기독교의 정신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라는 것처럼) 또한 되돌려듯 다시 짚어야 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인들이 ‘신앙’의 대상로서의 기독교와 제도화된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며, 동시에, 제도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본래적 기독교의 모습(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등)은 늘 새롭게 재편되고 비판받으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객관화된 시각이 필요한 이유는 여성을 비롯한 약자들을, 즉 성폭력이나 차별 등의 현상에서 피해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편들어주고 지지하며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주인공은 목사나 지도자가 아니라 평신도 하나하나라는 것, 그래서 그 구성원 중에 어느 하나라도 깨지거나 실족하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한 것이라는 인식이 없이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종류의 사회 구조적 악에 대해서 그것을 멈추고 해결할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을 경우, 일반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해 2차 3차 피해를 입게 하는 것처럼, 아니 그 보다 더 피해자인 여성을 비난하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려는 현상은 교회에서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목회자 위주의 사고방식이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중요하고, 기독교적 인간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한, 교회 내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더 공동체에서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로 여겨지며, 오히려 그들을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람들로 비난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2. 중층화된 여성과 남성의 관계 : 평신도와 목회자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성폭력의 사례들은 그 층위가 좀 더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혐오적 생각들에 더하여져서 목회자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평신도 여성에게 성폭력을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 1) 어떤 방식으로 교회 내에서 목회자 성폭행이 다뤄지는가

S교회를 담임했던 J목사의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왜 일반인이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와 달리 모든 행실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목회자에 대한 처벌이 더 지연되고 감추어지는 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J목사는 소위 ‘스타목사’였다. 유명한 저서도 너무 많았고, 청년들을 전도하고 이끄는 데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목사였다.

J목사의 사건은 그러나, 본인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J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라는 인터넷 카페 및 운동단체까지 결성해서 목사의 사직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그에 응당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유명한

목사라는 이유로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젊은이 교회로 부응하여 성도수가 1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에서 목회자로 있었기 때문에 정작 이 사건을 처리하는 당회구성원의 수가 불과 4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변호사로 구성된 ‘4인위원회’가 2010년 9월 뉴스앤조이에 기사를 내면서, ‘3개월 설교정지, 6개월 수찬정지’라고 하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당회는 비밀리에 이를 진행하였고 대외적으로 J목사의 안식년이라고 광고했다. 같은 해 10월 교회개혁실천연대 측에서 총 3부 14개항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S교회 측은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의혹이 불거지자, J목사는 2010년 11월 1일 교회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같은 해 12월 9일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교회와 해당목사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만 할 뿐 ‘죄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 이후 J목사는 교인들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퇴임 후 1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S교회는 “주택구입 명목으로 10 억원, 만17년 봉직한 퇴직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향후 몇 년간 목회활동 중단에 따른 생활비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치유 명목으로 1억 원 등 총 13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세 보증금을 상계하고 10억 6500만원을 지급했다.<sup>1)</sup>

이처럼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교회 내에서는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는 그 목회자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감싸고돌고 처벌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서 J목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형법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S교회에서 받은 전별금 중 1억 원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한다.<sup>2)</sup> 결국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성범죄를 교회 밖의 사회법에서 처벌하게 된 것이다.

2016년 11월에는 60대의 목회자가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남 창원 P교회 담임목사인 이 사람은 20대 여성 두 명을 모텔과 집, 교회 등에서 성추행해 왔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감추려했지만 우연히 한 여성이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자신도 피해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공유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이 두 여성이 모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고, 목사는 상습적으로 “딸 같아서, 아버지니까 돌봐주는 것이라”는 명목으로 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2016.8.29.일자 오마이뉴스)

교회 내 성폭행의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성폭행을 가장 많이 범하는 직업군이 목사라고 하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목회자를 대하는 방식이 더 심각한데, 그 목회자가 목회적으로는 뛰어나다는 이유로, 혹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보면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등, 목회자를 ‘범죄자’로 여기지 않고 실수를 한 여전히 일 잘하는 목회자로 보고 있는 교회의 풍토가 성범죄를

1) 숨바꼭질 94-98p

2) CBS 노컷뉴스 2017년 6월 7일자, “법원,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의혹 사실로 인정돼”

계속 방치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

## 2) 교회 여성의 이중적 억압 현실 : 가해자는 목회자(지도자)인 남성

S교회는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J목사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피해자들을 몰아세운다거나(신천지에 영향을 받아 녹음기를 가지고 목사실에 들어갔다는 등) J목사에 대해 치료든 처벌이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식년을 갖는다고 교인들을 속이고 J목사가 다시 교회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 교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고소를 했다. 부산의 어느 목회자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사회에 알리겠다고 하니 갖은 협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신앙적이고 신학적 기반들이 성폭력을 더 은폐하면서 한 편으로는 강화시키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남성목회자들은 자신이 목회자라고 하는 권위를 근거로 하여 여성들을 이중으로 대상화시키고 있다.(여성이라는 이유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평신도라는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고 있다.) 교회 여성들이 주로 당하는 성폭력은 목회자들로부터 행해지는 데, 이 경우 교회의 신조나 믿음체계, 그리고 여성들의 신앙 교육 등을 악용해서 발생할 때가 많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이 교묘하게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역할과 성적 차이보다도 더 교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이분법적 종속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그 안에서 남성들은 여성들의 ‘머리’이며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게다가 그러한 남성들의 지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게다가 남성은 지도력으로 여성은 그 지도력에 순종하고 종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부합된다고 하는 잠재적 동의가 존재한다.<sup>3)</sup>

남성 목회자들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의 형태는 대개의 경우 목회적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게 된다. 심방을 가서, 위로해주기 위해서라고 미화한다거나, 본인의 거룩함이 이어지기 위해서, 신체적 친밀감은 필수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는 등, 혹은 아버지가 딸을 돌보는 돌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성폭행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대리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반 남성을 대할 때처럼 방어적일 수 없고,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더 어렵다는 현실적 자각의식이 있어야 한다.

평신도들이 남성 목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과 같지 않다. 목회자에 대해서 자신을 매우 약하고 의존적 존재로 정의내릴 때가 많다. 목회자가 하는

---

3) 깨어진 침묵, 144p

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이 깊고, 교회생활을 많이 한 여성 평신도들에게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실제로 일반남자가 아니라 남성 ‘목회자’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이 무력해졌다는 경험담을 토로하는 피해자들이 있었다.

더더군다나 목회자가 성경구절을 인용한다거나 신앙적 조언을 하면서 성폭행을 강요할 경우 그것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심한 경우, 남성목회자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그냥 남자가 아니라 ‘목사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목회자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선택한 것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서 세 명의 여신도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 성행위를 하고 안마를 요구했다.(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바쳐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인 여신도는 그 상황이 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성폭행을 당했고, 자신의 신학적 체계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목회자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sup>4)</sup>

앞서 이야기한 J목사의 경우도 성경구절을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남용하여 결혼을 앞둔 여성에게 부부생활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준다면서 성폭행을 감행하였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남성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양상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레디거(Rediger)라는 학자는 교회 내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연구했는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스타의식’을 쉽게 경험한다는 점이다. 목회자는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자신에게 묘한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우며,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며,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상벌을 주고 충고하는 등 뭔가 아주 중요하고 큰일을 하는 사람으로(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목회자가 자신을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면서 스타로서의 자신을 내면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데, 그것은 자신에게는 도덕적 규칙이나 원칙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sup>5)</sup>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충고를 할 수는 있을지라도 자신은 책임을 묻지 않는 현상은 성적으로까지 부정적 행동을 귀결시킨다. 스타 의식 속에서 마치 평신도에게 수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신의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그를 흠모하는 교인의 판단력까지 마비시키게 된다.

J목사 말고도 라이즈업 대표직을 했던 목사의 이야기나 성폭행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들에게 성폭행을 가하면서도 그 폭력을 ‘목사’이자 권력을 가진 이로서 약자인 여성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포장하거나 협박을 하면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혹은 그러한 목사(교수)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감행하였다.

4)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118p

5) 정희성, 123p

이렇듯이 교회 내에서는 남성 대 여성의 이분법적 구조에 덧붙여서 목사와 평신도라고 하는 권력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가 있다. 사회에서의 여성보다 교회내의 여성들은 더 중첩된 이중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셈이다.

### 3) 교회 내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정형화’된 성역할

교회에서 바람직한 여성신도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이 존재하는 데, 그러한 모습에 대한 내면화가 정작 여신도들이 목회자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했을 때에도 그것을 부당하다거나, 저항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상적인 여성상의 모습은 봉사하고 남성에게 순종하는 여성들의 모습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무엇을 요구하든 - 심지어 성폭력을 행사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저항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여성상은 자신의 고난을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여성상이다. 성폭행을 당하고서도 자신이 감내하고 목회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 목회자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응을 하게 되는 것도 여성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며, 그것이 여성의 신앙적 미덕이라고 교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우리교회 목사님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받고 쓰임 받는 목사님이니까 치유되시길 기도해드릴 뿐 제가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sup>6)</sup>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문제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여성은 유혹적이고, 남성보다 본능적이며 악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성상이다. 창조설화에서부터 하와는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아담까지 타락시키게 만든 원인으로 투영되어서 비추어졌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도 성서에서는 유혹적이고 부정적이고 죄가 많은 여성으로 해석되어왔다.<sup>7)</sup> 실제로, J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신도를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공개하였다) 일부러 그 목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녹음기까지 준비한 신천지 교인이라고까지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듯이 교회는 여성들에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남성 앞에 굴종과 순종을 강요당하거나 무력하게 스스로를 타하게 만드는 여성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교육시켜 왔다. 이러한 여성에게 강요되는 역할, 과제, 성적 정체성은 설교와 같은 교육적 계기들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전달되고 주입될 뿐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목회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여신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요되고 있다.

6) 숨바꼭질, 56p

7) 여신협 “깨어진 침묵”, 146p

#### 4) 남성성과 신성함- 하나님의 대리자, 남성 목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서는 많은 경우, 여성의 종속과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 읽혀져 왔다. 성서적 인간이해가 남성의 경험이나 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서의 주요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은 남성들이고, 여성들이 등장한다고 해도 남성의 관점에서 읽혀진 여성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의 여성들은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다’ 혹은 ‘여성은 자손을 낳기 위한 성적 도구이다’ 등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 왕의 아내로 삼게 하는 이야기(창 12장), 롯이 소돔 시민들로부터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배에게 자기 딸을 겁탈하도록 내어 놓은 이야기(창 19장), 레위인의 첩이야기 - 남편으로부터 방치되어 베냐민 사람들에게 겁탈당하고 문밖에서 비참하게 죽는다(삿19장).- 혹은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와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고서 그 서원대로 딸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한다고 자매가 아버지의 침소에 드는 이야기 등등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되지 않은 이야기가 성서에는 너무도 많이 등장한다. 또한 이러한 성서의 여성이해는 피해자 여성들이 자신에 대한 성폭력의 경험을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마비시킨다. 많은 경우,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기 보다는 더 좌절하거나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8)</sup>

여성의 성폭력 경험에서 문제시 되는 신학적 메시지 중에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내면화되어 온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들 수가 있다. 기독교 교육 속에 익숙해있던 여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나 남편, 혹은 남성 목회자와 더 쉽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다.<sup>9)</sup> 따라서 성폭력 상황에서도 여성은 하나님이 남편이나 남성 목회자의 편에 서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남성 이미지는 피해자 여성들에게 묘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를 받은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신앙이 부족하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sup>10)</sup> 이러한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것과 남성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생각은 목회자의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줄 수 있는 수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목회자를 범죄자로 인식하지 않게 만든다.

성폭력으로 기소된 어느 목회자의 경우도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그 동안 목사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게끔 훈련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목사님이 대신한다고 믿었다(보이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겼다).”<sup>11)</sup>라고 했다고 한다.

8) 김규식 “여성 성폭력과 기독교 자원의 순기능을 위한 연구” 64p

9) 정희성 “여성과 목회상담” 119p

10) 김규식 “여성 성폭력과 기독교 자원의 순기능을 위한 연구” 68p

이와 같이, 목회자가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이것이 그저 남자가 여자에게 성폭행을 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신도들에게 특히나 순종적 성향의 여신도들에게 목회자는 남자가 아니다. 특별한 남성이다. 신을 대리할 수 있는 절대적 남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이고 따라서 그것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소를 하고, 벌을 받게 하는 것)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교회 내에서 성폭행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 여성들은 자책을 하거나, 넘어가려고 하고, 혹은 가해자인 남성 목회자를 두둔하게 까지 되는 것이다.

### 3. 현실적인 대안 : 여성을 주체로 보는 제도적 장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가 여성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야, 여성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피해자의 증언과 고발에 공감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참을 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2,3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성폭행 사건을 드러내거나 고발하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더 어렵고 복잡하지만, 피해자들이 고발을 한다고 해도, 피해자들과 동참하며 함께 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공동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감리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성폭력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연회에 정식 기관으로 등록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만나 압력을 행사하고, 연회에서 목회자에게 적절한 징벌을 내리도록 하는 모임을 구성하고, 대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교회 전체가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지라도, 교회 내 성폭력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모임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에서 일고 있는 ‘믿는 페미’나 ‘갓 페미’ 등의 모임을 통해 여성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면서 교회를 바꾸어나가려는 의지를 가진 여성들이 모임과 독서토론 등을 하고 있는 현실 또한 낙관적이라고 생각해 본다. 

11) 오마이뉴스 2016. 8.29일자

## ‘#WITH YOU’, 기독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sup>12)</sup>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변화한 어느 거리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그들의 발길은 강남역으로 향했다. 무수히 흩어져간 죽음에 ‘묻지마 살해’ 대신 ‘여성혐오 범죄’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희생당한 여성을 떠올리며, 자신들이 당연하게 겪어야했던 일상의 폭력과 차별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나는 너다”... 강남역 10번 출구 유리벽을 채운 3만 5천여 장의 포스트잇에는 살아남은 이들의 불안과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애도를 넘어서 ‘나’에게 있었던 또는 있을지 모를 폭력의 공포를, 여자라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차별을 고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세상은 터져 버릴 것이다’라고 한, 어느 페미니스트 시인의 말처럼, 우리 사회는 이제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 법조인의 증언에서 촉발된 고발은 문화예술, 교육, 정치 등 실로 사회 전 영역의 증언으로 확대되었다. ‘미투’ 운동이 만들어낸 변화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일부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카메라 앞에 서야 했다. 연일 터지는 ‘미투’ 소식은 종교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피해 당사자들의 직접 고발은, 말하지 못하던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을 움직였다. 그들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했던 추행과 폭행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어떤 경우 카메라 앞에서도 증언했다.

사실 교회 내부의 성폭력 사건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2016년과 2017년에만 해도 유망한 청소년 사역자들의 성범죄가 연이어 폭로되었다. 대중들이 받은 충격과 그 파장은 그들이 누렸을 지지와 인기를 압도했다. 목회자에 의한 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다뤄졌지만,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기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셌다. 이미 수년전에 해당 단체의 지도부 및 원로들이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었으나,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조용히 수습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모 목사의 경우에는 이미 성범죄로 조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목회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 어디 특정 단체, 일부 교단에 국한된 문제이겠는가?

12) 본 원고는 ‘가톨릭평론’ 15호, [특집] 일상의 평화를 위한 ‘미투’&‘위드유’에 최근 기고글입니다.

## 교회 성폭력은 왜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네가 입을 뺏긋하면 사탄이 그 말을 이용해서 우리 사역을 망친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걸 참아라. 너 한 명만 참고 견디면 성령을 휘방하지 않게 된다.”

존경받는 청소년 사역자로 알려졌던 이동현 목사가 피해자에게 한 말들이다. 이 목사는 과거 18세 고등학생에게 4년여에 걸쳐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했다. 목회자에 의한 피해는 ‘믿고, 의지하며, 섬기던’ 사람에게 의한 피해이기에 친족성폭력 후유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여타의 성폭력사건이 그렇듯 가해자는 의도를 갖고 취약한 대상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또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길들이고,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나쁜 의도를 감춘 채 길들이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종교적 권위자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거나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피해자가 그것이 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상담이나 심방, 안수 등의 목회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렇듯, 영적, 신학적 권위가 목회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교인들은 피해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났던 피해자들은 피해 경험을 드러냈을 때 가해자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고백했다. 실제로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증언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이를 비호하는 주변사람들의 비난, 즉 ‘성직자를 유혹했다’, ‘시험에 들게 했다’,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탄이다’ 등의 언어폭력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폭력은 폭력으로 분별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주관과 주의가 필요하다. 무지와 편견이 우리를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드러나도 처벌된 사례도 많지 않다. 피해자들은 거부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더욱 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한다. 우리의 문화에서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을 유발한 사람으로 비난받거나 고귀한 정조를 잃은 자로 취급된다. 최선의 경우 ‘동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폭력 상황을 멈출 수 있으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은 곧 암묵적 동의가 아니냐는 편견은 피해자에게 무거운 피해의식을 남긴다. 성폭력 범죄는 유일하게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를 비난받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동의에는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의 무안함을 배려하는 바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를 동의했다고 할 수 없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해왔던 목회자의 부당한 요구를 해와도, 자신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견뎌왔다. 그러는 사이에, 피해는 반복되고, 피해자의 수도 늘

어났다. 피해자의 탓이 아니다. 가해자는 교인들의 내적 고민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다.

### 범죄자를 옹호, 은폐하려는 교회, 가해자의 다른 얼굴이다.

삼일교회 담임목사였던 전병욱 목사는 적지 않은 목회기간 동안 복수의 여성 교인들을 성추행했던 사실이 드러나, 교회를 사임해야 했다. 전병욱 목사는 청년들을 전도하고 이끄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목사로 알려져 있었다. 개신교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언급되는데 이견이 없었다. 삼일교회 당회는 비밀리에 ‘3개월 설교정지, 6개월 수찬정지’ 징계를 내렸고, 외부에는 전 목사의 안식년이라고 광고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전 목사는 2010년 11월 1일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같은 해 12월 9일 교회를 떠났다. 전 목사는 ‘교회와 하느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만 에둘러 해명했고, 삼일교회는 전 목사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10억 원, 만 17년 봉직한 퇴직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치유 명목으로 1억 원 등 총 13억 4,500만 원을 지급했다.

전 목사는 사임 1년 5개월 만에 흥대 부근에 ‘흥대새교회’를 개척했다. 삼일교회 측의 ‘전 목사 면직 청원’은 사건 초기부터 꾸준히 평양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이하, 예장합동) 총회에 제출되어왔다.<sup>13)</sup> 이에 대해 평양노회는 삼일교회가 당회 결의 없이 장로 개인 명의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또 당회가 낸 면직안이 시찰회를 거치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접수를 거부했다.<sup>14)</sup> 외부의 비판이 거세지자, ‘세상 법의 판결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의 고발도 없었다’는 논리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감리교, 장로교 등 15개 범 교단 725명 목회자와 5,075명의 시민이 서명으로 합동 교단(삼일교회 소속 교단)에 면직을 촉구했으나, 징계는 공직(임원) 정지 2년·설교권 2개월 정지에 불과했다.

"전 목사는 이 사건에 대해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17여 년 동안 청년 목회를 통해 부흥시킨 2만여 명의 성도와 253억 원의 현금을 남겨 놓은 채 2010년 12월 경 삼일교회를 떠나 사임했다. (중략) 전 목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 했고 그 후 현재까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도전과 고난을 받으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다."

13) 노회는 개신교 교회 단위의 상위 의결기관이며, 대의제에 기반한 교회정치체제에서 노회는 교회의 그 기본 단위이다. 이에 따라 목사와 장로는 모두 노회원이 된다. 삼일교회는 북한에서 남하한 교인들이 구성한 평양노회 소속이다.

14) 시찰회는 개신교회의 교단별 소규모 지역 교회조직으로, 노회제출서류 점검, 지역 및 소속 교회 현안 점검 등의 행정사항을 주요업무로 한다.

당시 노회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가해자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하고, 처리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노골적인 묵인과 방조가 없었더라면, 성범죄가 그토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자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증언한 피해교인들은 ‘목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준비한 이단 교인’이라고 공격받기도 했다. 성추행 피해자를 대면했던 모 장로는 증언이 너무 일목요연해서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한 발언에는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삼일교회는 노회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총회에 상소했지만, 예정합동은 되려 전병욱 목사 사건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2017년 9월, 대법원은 전병욱 목사가 여성 교인 5명에게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목사는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회가 당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물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의 법적 단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이 판결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던 예정합동 노회와 총회는 침묵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의 조직구성원으로 있을 경우에 성폭력 문제 해결은 더욱 복잡해진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또는 하고 싶지 않거나), 관계상의 복잡 미묘한 감정과 무력감이 함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공식적 해결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계속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추측과 분노,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등으로 피해자들은 이제라도 세상에 범죄사실이 알려지길 원했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이 확인되고, 절차가 없거나 훈련이 부족한 상황이 드러나게 된다. 믿고 따랐던 공동체 지인들에게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려도, 그들의 신뢰와 지지를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의 미투 역시,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가 부재한 지금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피해자가 성폭력을 인지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고소 시한이 지나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쉽지 않다. 하느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고귀한 존재로 스스로를 무장한 목회자는, 마치 수해를 베푸는 것처럼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정당화하고, 교인들의 판단력까지 마비시켜 왔다. 교회 성폭력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 우리는 교회 성폭력을 어떻게 다뤄왔는가?

교회개혁실천연대<sup>15)</sup>는 2002년 출범 이후 꾸준히 개별교회 단위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한 제보를

15)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병욱 목사 면직 촉구 등 이슈 파이팅 및 사건 지원, 2016년 ‘이주 노동자’의 대부 김해성 목사 사건 등을 지원했다. 또한 목회자 성윤리 어떻게 다뤄야 하나’(2016. 4.26), ‘여성 안수 신학적 확신에 도전하다’(2016.06.02), ‘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2016.9.19)를 주제로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해왔다. 이전에는 재정 전횡, 인사비리 등의 문제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 성적 문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sup>16)</sup>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드러내야만 사건화 되고, 집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면 아래에 감춰진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임이 분명하다.

일반 학교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성폭력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불이행시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신교 내부에서 성폭력 교육을 실시하는 일부의 경우에 국한된다. 성폭력예방교육은 법적 의무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중들은 성차별 이슈에 대해 다양한 채널로 반응하는 등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에, 교회의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다. 특히 목회자 양성기관인 신학대학원에서 ‘성윤리’ 관련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신학대학원은 전국에서 단 6곳에 불과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4월, 14대 교단 산하 31개 대학의 반성폭력 예방 노력과 성윤리 정책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16년 4월 기준 신학대학원 내 전체 학생 대비 여학생은 22%~50%까지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성윤리 등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학교는 감리교신학대학원, 대구신학대학원, 서울장로회신학대학원, 영남신학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원, 칼빈신학대학원 등 여섯 곳에 그쳤다. 또한 17개 대학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대부분 비정기적 이거나 단회 프로그램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당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모 신학교 재학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뤄지는 15분이 예방 교육의 전부였다고 말했다. 성희롱고충상담센터와 같이 특화된 상담소를 운영하는 곳은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세 곳에 불과했다. 사회적 요구에 떠밀려 의무감에 교육을 실시하지만 역량과 의지에서 모두 터무니 없이 부실했다.

이처럼 교회 현장에서의 성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교단과 교계에는 사건을 대처할 기구도,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 성범죄 사유로 목사를 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교단 역시 아직 한 군데도 없다.

## 여성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혐오가 되고,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가.

성폭력, 차별, 여성혐오의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공공장소에서 차별적 발언이나 행위에

---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16)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목회자 성폭력 관련 상담은 2013년 전체 61건 중 7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전체 상담의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11건, 2015년 17건, 2016년 24건, 2017년 16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한 제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가 조성되어 가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차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목회자 성범죄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가?’ 성폭력은 단순히 일부 남성 목회자들의 비정상적인 돌출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현상도 아닐 뿐더러 불행하지만 예외적인 사건도 아니다. 아직도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교단이 존재하고,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뿐 아니라 지 교회별 당회는 중장년 남성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오랜 시간동안 신학적 교리와 성서 해석은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여성 스스로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작동해왔다. 또 교회는 하느님의 의지와 무관한 위계질서와 차별 구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도록 훈련시켜왔다. 늘 ‘예’라고 답하는 ‘착한 종’만이 교회 공동체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양산했다. 성폭력은 학교나 직장, 종교기관 등 위계구조를 강조하는 집단에서 많이 발생한다. 교회의 성폭력은 낮은 성평등 감수성에서 자란 암세포와 같다. 죄의식 없이 범죄가 저질러지고, 공동체는 이를 범죄로 인지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고, 조용히 사라지면 그만이었다. 한국교회를 지배해온 가부장적 질서와 차별적 문화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성폭력 문제는 늘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교단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 뿐 아니라 교회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1차 책임은 물론 가해자에게 있지만, 교회와 교단은 미숙한 대처로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교회는 더 이상 안전한 영적 공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교인들은 환멸감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 자체를 포기한다. 어떠한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되는지, 해당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필연적으로 권력구조에 대한 성찰로 연결된다. 개인윤리나 덕목만의 문제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 구조적 권력관계를 고민하도록 만들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착취할 기회가 주어지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과 연대하는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다면 말이다.

## 피해 입지 않을 권리, 차별하지 않을 권리로 이해

교회는 흔히 자신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금의 교회는 빛과 소금은커녕 사회적 진보에 역행하기 일쑤이다. 성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보수

적 교리와 왜곡된 유교관이 혼재된 교회현장에서 여성은 남성지도력을 수발하는 존재로서의 ‘자매님’만을 필요로 한다.<sup>17)</sup> 그간의 한국개신교 역사는 죄인을 양산하여 교세를 키웠고, 더 이상의 외적성장 동력을 상실한 지금에는 동성애자와 같은 가상의 죄인을 만들거나 내부 고발자와 같은 이단자를 만들고는 결집과 체제 안정을 꾀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통계는 이와 같은 시도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전향적 각성이 없는 한, 한국 개신교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교회가 요구받고 있는 전향적 각성의 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속한 것이 바로 성폭력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다. 그간 교회는 은폐를 통해 성폭력을 조장했고, 두둔을 통해 가해자를 응원했으며, 침묵 강요를 통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제라도 교회는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구체적 변화의 행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sup>18)</sup> 우리의 교회는 안전한 공간입니까? ‘미투’가 만들어낸 질문들에 이제 응답할 때다. 

---

17) 켄지 요시노는 “커버링”을 통해 권력적 다수 성은 소수 성에 대해 규범적으로 허락한 범주에만 존재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고 보았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여성들을 ‘착한 자매’로 ‘커버링’하고 있다.

18) 이를 위해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올해 7월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센터는 교회 내 성폭력 피해사례접수와 상담, 피해자에 대한 다면적 지원과 보호, 교회의 성평등 감수성 함양을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 등을 통해 성폭력이 근절되는 교회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